

현지에 오면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우선 간단한 학교소개와 생활전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교내 그리고 교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해줍니다. 학교교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 지역사회봉사단체기관인 Wise old owl이라는 곳에 가서 지역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여 차로 이동하면 20분 정도 걸리는 이곳은 기독교단체의 기관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책 읽기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숙제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3:00에 학교 도서관 근처에서 모여서 이동하면 3:30정도 되고 보통 저녁 6:00 까지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1주일에 한번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영어향상을 뿐만 아니라 해맑은 어린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미국문화를 보다 잘 보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매주 금요일에 모임을 가지는 ISF(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 전세계에서 온 교환학생을 위한 모임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알아가는 모임입니다. 혹시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분이라도 전혀 부담 없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권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성가를 같이 부르고 성경공부도 같이 하고 전세계 여러 나라들을 같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전혀 어색함 없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그 종교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할거 같고요. ^^ . 일정으로는 보통 저녁식사 후 간단한 친목도모시간(게임, 노래), 그리고 기도, 성가 부르기 등등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충 저녁 6:00에 시작된 모임은 9:30경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토요일에 만남을 가지는 Host Family가 있습니다.

현지미국인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약기도 배우며 서로를 알아가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녁6:00에 만나 Host의 집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Computer games이 아닌 Board games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고 집에 돌아가는 교통편도 걱정해줍니다. 헤어지는 시간은 즐겁게 놀다가 지칠 때까지 입니다 ^^

(4)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Campus Bible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등의 종교시간은 없습니다. 저녁 6시에 모여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English idioms을 배웁니다. 보통 6개 정도의 숙어들을 가르쳐주고 틀리기 쉬운 발음도 잡아주고 생활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6:00에 모여 저녁식사하고 1시간 정도 영어 idioms을 공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